

■ 덴마크, 기업의 환경보고 의무 강화

- 덴마크 정부는 기업의 환경보고 의무에 관한 현행 규정⁷⁾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
 - 새로운 규정을 2001년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고 의무사항을 과거보다 세분화함으로써 규정이 보다 강화된 셈임
 - 이는 환경보고서 제도를 오염배출 허가제 및 세제 혜택과 연계시킴으로써 기업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
 - 기업의 공시 의무사항이 강화되었으며, 해당 지역 감독당국의 의견이 첨부되도록 함
 - 보고서에 자료를 첨부해 공시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환경 관련 내부 통제 절차
 - 폐기물 처리·처분 내역
 - 환경 재해 예방 및 복구 방안
 - 당해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주요 민원
 - 기업 환경 정책의 내용 및 그 결과
 - 납품업자에 대한 환경성 요구 사항
 - 최근 5년간의 기업 환경史
 - 對 EU 수출업체 및 현지 법인의 환경회계체제 구축이 요구됨
 - 기업환경보고 제도가 강화되는 것은 歐美 지역의 최근 추세이며 특히 EU 역내의 법규화가 덴마크, 영국, 독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
 - 1996년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환경 관련 주요사항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EU의 추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
 -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환경성 준수 여부까지도 주요 보고사항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관련 업계의 대비가 요구됨
- 김 성 철(02-3669-4110, sckim@hri.co.kr)

7) 덴마크의 1,200여 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1995년 이후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옴